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엄 세 진¹⁾

정 옥 분²⁾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3~6학년에 재학중인 초등학생 178명을 대상으로,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엄세진과 정옥분(2006)의 초등학생용 기본생활습관 척도와 이해주(1996)의 친사회적 행동 척도를 이용해 수집된 자료는 평균, 표준편차, 이원분산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그리고 정준상관 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기본생활습관 중 '질서'와 '정리정돈' 요인은 학년이 낮을수록, '건강'과 '자율' 요인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친사회적 행동 중 '협력하기'의 경우 학년이 낮을수록, '돕기', '협력하기', 그리고 '편안하게 하기' 요인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넷째, 기본생활습관 하위요인들 중에서 친사회적 행동 요인에 관한 예측력은 신의와 책임, 질서, 정리정돈, 예절, 건강, 청결, 그리고 자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본생활습관 요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 요인은 돕기, 협력하기, 나누기, 편안하게 하기 순이었다.

주요어 : 기본생활습관, 친사회적 행동, 초등학생, 신의와 책임, 돕기

1)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E-mail : sjeom@korea.ac.kr)

2)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I. 서 론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초적인 교육, 즉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 및 인간존중의 가치관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교육부, 1998). 하지만 오늘날 교육현실을 보면 아동의 지적 교육은 중요시 되는 반면에 생활 질서 유지와 같은 교육이 등한시 되는 이른바 기초교육의 부재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동, 도움, 나누기, 차례 지키기, 그리고 사회적 문제 해결 등과 같은 사회적 기술들을 익혀나가야 하며(한국유아교육학회, 1996), 이 가운데에서도 기본생활습관 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기본생활습관이란 한 개인이 생활의 기본을 익혀서 습관화하는 것으로, 관습과 전통 속에서 계승되어온 사회 규범과 원리에 따라 행동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삶의 양식에 적응하며 행동을 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교육부, 1994; 이원영 등, 1992). 이러한 기본생활습관은 자기 자신, 나아가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과 주변의 환경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되풀이 되는 행동으로 먹는 것, 잠자는 것, 배설과 청결, 휴식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과 사회구조에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을 익히는 것이다(보건복지부, 1997). 따라서 개인이 사회적 자아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기초적인 행동규범을 몸에 익히고 이를 습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생활습관은 여러 개의 세부 덕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크게 전통 사회에서 중요시 되어졌던 덕목과 현대 사회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덕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전통 사회에서는 크게 용의(容儀)와 언행(言行)으로 구분한 뒤, 다시 이를 세분화하여 용의(容儀)·복장(服裝)·식사(食事)·언어(言語)·기타 행동거지(舉止)를 주요 기본생활습관 덕목으로 삼거나(류점숙, 1991; 방인옥, 1998), 개인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로 구분한 뒤, 개인생활에서는 인성(人性)과 수신(修身)을, 가정생활로는 효도(孝道), 예절(禮節), 대사물관계(對事物關係)¹⁾, 제례(祭禮)를, 그리고 사회생활로는 대인(對人)과 처세(處世)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도 했다(오경숙, 1995). 또한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세우고 닦기 위하여 입지(立志), 독서(讀書), 행동거지(行動舉止), 의복(衣服), 그리고 음식(飲食) 등 세세한 지침을 세워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제시한 바 있다(강지영, 1994).

현대에 와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본생활습관 연구(교육부, 1995; 남암순, 1989; 유창열, 1983; 채허석, 1992; 최충지, 2000)에서는 개인덕목(성실, 합리, 자각, 건강, 긍정적 태도, 도전적 태도 등), 가정덕목(감사, 배려, 효도, 화목, 근면, 절약 등), 학교덕목(정직, 신의, 책임, 관용, 창의성 등), 국가생활(주체성,公德심, 준법, 사명감, 반공 등), 사회덕목(공경, 봉사, 규범준수, 예절, 친절, 협동, 질서 등), 그

1) 가정의 경제생활에 관한 내용으로 정당하게 절약하며 검소한 소비생활을 권장하고 있다(오경숙, 1995).

리고 세계덕목(열린 마음, 주체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종합해보면 기본생활습관은 사회에서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요구하는 규범과 원리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의 목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생활습관의 덕목은 학자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존재해 왔으나, 그 범위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본생활습관은 사회 구성원들이 인습적으로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기본 윤리에 관한 실천적 덕목으로, 예절, 청결, 친절, 질서, 근면, 절약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행위이다(김종두, 1991).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최근 연구내용들을 살펴보면, 기본생활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과 관련된 연구들로 국한되어 있다. 주된 변인으로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예: 몬테소리 프로그램, 전통예절교육 프로그램, 인격교육 프로그램 등) 등으로 나타났다(김병래, 2002; 김현숙, 2000; 문현숙, 2002; 송세정, 1999; 안현정, 2003; 최상연, 2001). 또한 지금까지 수행된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연구들(박명순, 1999; 연영아, 1993; 정현아, 1994; 표옥자, 1996)의 상당수는 유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기본생활습관 연구에서는 그 대상과 내용의 범위를 다양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치에 부합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 즉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된다(정금자, 2001).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회적 행동도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익히게 된다.

사회적 행동은 타인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과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 또는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 등으로 구분된다(양정선, 1997; 윤여운, 1998). 오랜 시간 반사회적 행동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Radke-Yarrow et al., 1983), 1960년대 후반부터는 물질만능과 이기주의에 대한 우려 속에서 친사회적 행동 연구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의는 크게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였는지, 동기적 측면을 강조하였는지, 그리고 공격적 행동과 비교하여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행동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자들은 친사회적 행동과 이타적 행동을 구별하여 정의한다. 즉, Freedman, Carlsmith, 그리고 Sears는 친사회적 행동이란 동기나 의도와 상관없이 행동적 의미로서 타인을 돕거나 도우려는 행위의 폭넓은 범주로 간주하고, 이타적 행동은 보수를 기대하지 않고 타인에게 혜택을 주는 선의의 행동으로 보았다(Walster & Pillavin, 1972). 또한 Eisenberg(1986), Weir와 Duveen(1981)도 친사회적 행동은 수혜자뿐만 아니라 행동자에게도 이익을 주는 행동으로, 이타적 행동은 좀 더 한정된 개념으로 보상의 기대 없이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기적 측면에서는 친사회적 행동과 이타적 행동을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한다(Shaffer, 1994). 예를 들어, Bar-Tal(1976)은 친사회적 행동이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

는 행동으로서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행동으로 보았다. 그리고 Hoffman (1982) 역시 친사회적 행동은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이익을 주거나 도와주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결국, 동기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이타적 행동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Midlarsky, 1984).

마지막으로 Krebs(1975)과 Rushton(1980)은 친사회적 행동을 공격적 행동에 대조가 되는 차원으로 간주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범위를 가장 비이기적인 행동인 이타적 행동에서부터 자기 이익에 준하는 동기화된 도움 행동까지로 확장시켰다. 국내 연구들(권연희, 1995; 박인자, 2001; 양성은, 1995; 이해주, 1996)에서도 친사회적 행동을 공격적 행동과는 다른 차원의 행동으로, 넓은 의미에서 보상에 대한 기대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는 다양한 형태의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리해보면 친사회적 행동은 기본적으로 결과에 대해 외현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행위로서, 그 행위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궁극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이 일어나면 행위자나 수혜자 모두가 기쁘게 되는 속성을 갖는다(이해주, 1996). 따라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란 명백한 단일 개념으로 규정되기 보다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내에서 외적 보상에 대한 기대없이 다른 개인 혹은 집단에 이익이나 도움을 주는 행동, 즉 도와주기, 칭찬하기, 공유하기, 관심가지기, 협력하기와 참여하기 등과 같은 행동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복합적 개념으로 정의된다(박유

경, 1992; Bar-Tal, 1982; Eisenberg, 1982).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령과 성별을 통한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관한 연구(이해주, 1996; 임성혜와 박은실, 1989; Tremblay, Vitaro, Gagono, Piche, & Royer, 1992),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훈련연구(윤혜숙, 2001; 한정선, 2001; Black, Seeman, & Trobaugh, 1999; Feshbach & Feshbach, 1982), 그리고 여러 변인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나은영, 2006; Hill & Mulis, 2000; Horton-Parker, 1998; Rosenkoetter, 1999) 등이 있다.

이처럼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친사회적 행동은 기본생활습관과 마찬가지로 기초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초기 사회화의 주요한 사회적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기술로서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McGinnis와 Goldstein (1990)의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친사회적 기술로 기초적인 사회적 기술, 학교와 관련된 기술, 우정을 만드는 기술, 감정 조절하기, 공격성에 대한 대안 제시하기,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하기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적인 사회적 기술에서는 듣기, 좋은말 사용하기,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기 등이, 그리고 우정을 만드는 기술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기, 차례 기다리기, 함께 사용하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권소영, 2002 재인용). 즉,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기초적인 사회적 기술과 우정

을 만드는 친사회적 기술은 기본생활습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cGinnis와 Goldstein(1990)의 사회적 기술 검사 척도를 변안하여 실시한 국내연구(김영옥과 윤경선, 1999)에서도 친사회적 토의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학교적응기술, 대인관계형성 기술, 개인정서조절기술)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기본생활습관이 제대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친사회적 행동 역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망능력이 요구된다(Spodek, 1982). 유아기는 인지적으로 자기중심성이 강한 시기인데 반해 아동기는 인지적으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지향이 가능해지고, 사회성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Gelman, 1969; Inhelder & Piaget, 1958). 따라서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 연구에서는 유아보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되는 사회적 기술인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여 이 둘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궁극적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본생활습관은 학년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친사회적 행동은 학년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 하위변인군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강남구, 관악구, 동대문구, 동작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3~6학년에 재학중인 초등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아동은 8세 이상 되어야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자기의 유능성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가치에 대한 견해를 구축, 자기지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Byrne, 1996; Harter, 1982; Harter & Pike, 1984; Wylie, 1989). 둘째, 자기의 능력에 대한 과장된 자기 평가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서 최고도에 달하고 그 이후에 감소되어 안정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Stipek, 198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달리 규범들을 내면화한 후 행동하며 자기 스스로를 지각할 수 있는 학년, 즉 3학년 이상

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회수된 자료는 238부(회수율 95.2%)였으나, 이들 중 부실하게 기재되거나 패턴화된 응답을 한 자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178명이었다. 학년별로 보면, 3학년생은 20.2%, 4학년생은 28.7%, 5학년은 25.3%, 그리고 6학년생은 25.8%이었다. 다음으로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학생은 92명(51.7%), 여학생은 86명(48.3%)이었다.

2. 측정도구의 구성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을 측정하기 위해 엄세진과 정옥분(2006)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개 하위요인(질서 9문항, 정리정돈 7문항, 신의와 책임 8문항, 예절 8문항, 건강 5문항, 청결 4문항, 자율 5문항)으로,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4점 리커트식(‘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1점)’, ‘가끔 그렇게 한다(2점)’, ‘자주 그렇게 한다(3점)’, ‘항상 그렇게 한다(4점)’)으로 되어 있다.

먼저 질서 요인은 나의 안녕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가정과 사회에서 설정해 놓은 공공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행동을 말한다. 정리정돈 요인은 가정과 학교에서 내 소유물과 타인의 소유물 나아가 우리 모두의 소유물에 대해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물건과 자기 주변을 가지런하고 반듯하게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행동을 뜻한다. 신의와 책임 요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완수하는 것뿐

만 아니라, 이를 통해 남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나아가 타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예절 요인은 타인을 예우하기 위해 때와 장소에 맞는 인사법과 언행을 구사하며 또한 표리부동하지 않고 진실된 행동을 말한다. 건강 요인은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개인,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 청결 요인은 손발 씻기, 이닦기, 쓰레기 바르게 처리하기 등을 통해 자기 몸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환경을 보존하는 등 깨끗한 생활태도를 갖는 행동을 말한다. 끝으로 자율 요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할 일은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서 해 나가는 행동을 가리킨다.

엄세진과 정옥분(2006)에 따르면 공통요인분석에서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7개 하위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36.7%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질서 .80, 정리정돈 .80, 신의와 책임 .77, 예절 .75, 건강 .74, 청결 .76 그리고 자율 .73으로 나타났으며, 3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질서 .78, 정리정돈 .72, 신의와 책임 .76, 예절 .81, 건강 .73, 청결 .68, 그리고 자율은 .77로 나타났다.

엄세진과 정옥분(2006)의 기본생활습관 척도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내용타당도와 사회적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그리고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통해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 검증을 하였으며, 끝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하였다.

친사회적 행동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Wier와 Duveen(1981)의 교사용 친사회적 행동 검사(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 PBQ)와 Doescher(1986)의 개정된 교사용 친사회적 행동 검사(Modified 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 Mod-PBQ)를 참고로 하여 이해주(1996)가 번안하고 수정한 교사용 친사회적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해주(1996)가 개발한 친사회적 행동 척도는 교사가 평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박인자(2001)의 연구에서처럼 아동이 자기보고식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 3점, ‘그저 그렇다’ 2점,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평정하였다.

친사회적 행동 척도는 ‘나는 친구의 물건(물감, 연필 등)이 바닥에 떨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어서 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돕기 요인, ‘학용품을 안가지고 온 다른 아동들에게 내 학용품을 나누어 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나누기 요인, ‘또래 집단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협력하기 요인, 그리고 ‘친구가 울고 있거나 기분이 상해 있을 때 다가가서 달래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편안하게 하기 요인과 같이 4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주(1996)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하여 문항분석결과에 따라 문항 전체 상관이 .30이하인 문항을 폐기하거나 수정하고,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여 최종검사를 완성하였다. 친사회적 행동 검사 신뢰도는 유

치원과 초등학교에 실시한 내적합치도에서 각각 Cronbach의 α 87과 .80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친사회적 행동 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돕기 .66, 나누기 .69, 협력하기 .67, 편안하게 하기 .63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는 아동학 박사 2인과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 2인에게 의뢰하여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절치 못한 문항들을 수정·보완함으로써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3. 연구절차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6학년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아동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 및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5년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질문지를 가지고 서울시 소재하는 초등학교 3~6학년에 재학중인 초등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이들 중 부실하게 기재된 자료 등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은 178명이었다. 연구자는 사전에 교사에게 질문지 조사방법 및 응답시의 주의점을 전달한 후 담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고 각 변인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의 학년과

성별에 따라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 각 하위요인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분산분석에서 F 값이 유의하게 나왔을 때,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왔을 경우 단순주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본생활습관의 하위요인군과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군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학년과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본생활습관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7개 하위요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 청결($M=3.28$, $SD=.56$)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예절($M=3.13$, $SD=.51$), 건강($M=3.10$, $SD=.51$), 질서($M=3.01$, $SD=.50$), 신의와 책임($M=3.01$, $SD=.49$), 자율($M=2.90$, $SD=.53$), 그리고 정리정돈($M=2.78$, $SD=.61$) 순으로 기본생활습관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이 학년과 성별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하위요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표 1. 학년과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질서	정리 정돈	신의 와 책임	예절	건강	청결	자율
남	초3	M	3.01	2.78	2.96	3.01	3.05	3.15	2.80
	($n=21$)	SD	.48	.60	.50	.61	.59	.85	.72
	초4	M	3.10	2.85	3.02	3.17	3.05	3.30	2.91
	($n=24$)	SD	.61	.76	.53	.64	.54	.61	.64
	초5	M	2.96	2.75	2.97	3.26	3.08	3.35	2.73
	($n=22$)	SD	.44	.49	.43	.42	.45	.49	.44
	초6	M	2.88	2.62	2.90	3.13	2.87	3.31	2.84
	($n=25$)	SD	.36	.58	.44	.44	.49	.42	.45
	초3	M	3.45	3.30	3.34	3.33	3.47	3.62	3.13
	($n=15$)	SD	.50	.54	.43	.36	.39	.47	.47
	초4	M	3.26	3.01	3.21	3.22	3.33	3.32	3.13
	($n=27$)	SD	.45	.54	.53	.57	.43	.51	.46
여	초5	M	2.84	2.67	2.93	3.00	3.04	3.20	2.92
	($n=23$)	SD	.44	.52	.45	.43	.45	.44	.43
	초6	M	2.70	2.39	2.83	2.92	3.01	3.08	2.78
	($n=21$)	SD	.41	.47	.48	.45	.56	.53	.53

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질서’, ‘정리정돈’, ‘신의와 책임’, ‘건강’, 그리고 ‘청결’은 초등학교 3학년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4학년, 5학년, 6학년 순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예절’과 ‘자율’은 초등학교 4학년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학년, 5학년, 6학년 순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하위요인 중 ‘예절’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높게 지각하였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의 하위 요인별로 나타나는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하위요인들 중 ‘건강’과 ‘자율’ 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건강’ 요인은 여학생($M=3.20$, $SD=.49$)이 남학생($M=3.01$, $SD=.52$)보다, ‘자율’ 요인도 여학생($M=2.99$, $SD=.49$)이 남학생($M=2.82$, $SD=.56$)보다 높게 나타났다.

‘질서’, ‘정리정돈’, ‘신의와 책임’, 그리고 ‘건강’ 요인에서는 학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느 집단 간에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질서’ 요인은 3학년($M=3.19$, $SD=.52$)과 4학년($M=3.18$, $SD=.53$)이 5학년($M=2.90$, $SD=.44$)과 6학년($M=2.80$, $SD=.39$)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리정돈’ 요인은 3학년($M=3.00$, $SD=.63$)과 4학년($M=2.94$, $SD=.65$)이 6학년($M=2.52$, $SD=.54$)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질서’, ‘정리정돈’, ‘예절’ 그리고 ‘청결’ 요인에서 학년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리고 그림 4에서 보듯이, 3학년과 4학년의 경우는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5학년과 6학년에서는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남자 아동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점수차가 크지 않으나 여자 아동은 점수차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요인들에 대해서 남녀별로 학년

표 2. 학년과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하위요인별 이원분산분석 (n=178)

초등학생의 기본생활 습관	분산원	df	SS	MS	F
질서	학년	3	5.796	1.932	9.099**
	성별	1	.242	.242	1.138
	학년×성별	3	2.411	.804	3.785*
	오차	170	36.098	.212	
정리정돈	학년	3	7.168	2.389	7.313**
	성별	1	.353	.353	1.081
	학년×성별	3	3.120	1.040	3.183*
	오차	170	55.546	.327	
신의와 책임	학년	3	2.320	.773	3.358*
	성별	1	.589	.589	2.558
	학년×성별	3	1.309	.436	1.895
	오차	170	39.158	.230	
예절	학년	3	.798	1.036	.378
	성별	1	.020	.078	.780
	학년×성별	3	2.137	2.774	.043*
	오차	170	43.646		
건강	학년	3	2.503	.834	3.451*
	성별	1	1.739	1.739	7.191**
	학년×성별	3	1.187	.396	1.637
	오차	170	41.103	.242	
청결	학년	3	.756	.252	.481
	성별	1	.027	.027	.765
	학년×성별	3	2.735	.912	.032*
	오차	170	51.796	.305	
자율	학년	3	1.471	.490	1.788
	성별	1	1.275	1.275	4.646*
	학년×성별	3	.866	.289	1.052
	오차	170	46.639	.274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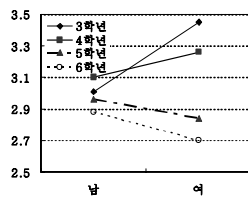


그림 1. 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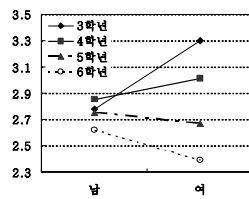


그림 2. 정리정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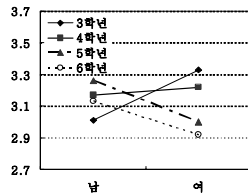


그림 3. 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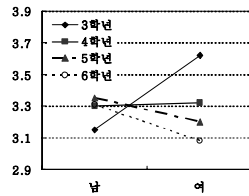


그림 4. 청결

에 따른 단순주효과(simple main effec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학생은 ‘질서’, ‘정리정돈’ 그리고 ‘청결’ 요인에서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학생은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질서’ 요인에서는 3학년과 4학년이 5학년과 6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리정돈’과 ‘청결’ 요인에서는 3학년과 6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초등학교 3, 4학년이 5, 6학년에 비해 ‘질서’를 높게 실천하며, 6학년보다는 3학년이 ‘정리정돈’과 ‘청결’을 높게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년과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의 친사회적 행동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친사회적 행동의

표 3. 학년과 성별에 따른 단순주효과 검증

질 서						
	남			여		
	M	SD	grouping	M	SD	grouping
3학년	3.01	.48		3.45	.46	a
4학년	3.10	.61		3.26	.45	a
5학년	2.96	.44		2.84	.44	b
6학년	2.88	.36		2.70	.41	b
F = .873			F = 12.166**			
정리정돈						
	남			여		
	M	SD	grouping	M	SD	grouping
3학년	2.78	.60		3.30	.54	a
4학년	2.85	.76		3.01	.54	ab
5학년	2.75	.49		2.67	.52	bc
6학년	2.62	.58		2.39	.47	c
F = .590			F = 10.877**			
예 절						
	남			여		
	M	SD	grouping	M	SD	grouping
3학년	3.01	.61		3.33	.36	a
4학년	3.17	.64		3.22	.57	a
5학년	3.26	.42		3.00	.43	a
6학년	3.13	.44		2.92	.45	a
F = .875			F = 3.085*			
청 결						
	남			여		
	M	SD	grouping	M	SD	grouping
3학년	3.15	.85		3.62	.47	a
4학년	3.30	.61		3.32	.51	ab
5학년	3.35	.49		3.20	.44	ab
6학년	3.31	.42		3.08	.53	b
F = .436			F = 3.800*			

$^{**}p < .01$.

† a, b, c는 사후검증결과를 나타냄(abc: 같은 문자 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4개 하위요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 결과 4개 하위요인별 평균의 범위는 2.27에서 2.35이었고 표준편차의 범위는 .39에서 .41로 나타났다.

표 4.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178)

친사회적 행동	돕기	나누기	협력하기	편안하게 하기
M	2.27	2.33	2.33	2.35
SD	.41	.39	.41	.40

표 5. 학년과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친사회적 행동	돕기	나누기	협력하기	편안하게하기	
남	초3 (n=21)	M SD	2.17 .35	2.28 .37	2.23 .35	2.20 .43
	초4 (n=24)	M SD	2.19 .47	2.33 .33	2.32 .48	2.33 .45
	초5 (n=22)	M SD	2.29 .33	2.30 .37	2.35 .38	2.24 .41
	초6 (n=25)	M SD	2.23 .41	2.21 .45	2.18 .45	2.22 .41
	초3 (n=15)	M SD	2.61 .37	2.57 .41	.265 .34	2.60 .25
	초4 (n=27)	M SD	2.42 .42	2.49 .40	2.53 .37	2.57 .42
	초5 (n=23)	M SD	2.17 .33	2.29 .36	2.30 .39	2.35 .28
	초6 (n=21)	M SD	2.18 .37	2.20 .30	2.18 .25	2.35 .26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이 학년과 성별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하위요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친사회적 행동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돕기’는 초등학교 3학년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4학년, 5학년, 그리고 6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나누기’, ‘협력하기’ 그리고 ‘편안하게 하기’는 4학년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학년, 5학년, 그리고 6학년 순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남녀별로 살펴보면, 친사회적 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별로 나타나는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을 살펴보면,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들 중 ‘돕기’, ‘협력하기’ 그리고 ‘편안하게 하기’ 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돕기’ 요인은 여아(M=2.33, SD=.41)가 남아(M=2.22, SD=.39)보다, ‘협력하기’ 요인은 여아(M=2.40, SD=.38)가 남아(M=2.27, SD=.42)보다, 그리고 ‘편안하게 하기’ 요인은 여아(M=2.46, SD=.34)가 남아(M=2.25, SD=.42)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나누기’와 ‘협력하기’ 요인에서 학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느 집단 간에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협력하기’ 요인은 4학년(M=2.43,

표 6. 학년과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별 이원분산분석 (n=178)

친사회적 행동	분산원	df	SS	MS	F
돕기	학년	3	.827	.276	1.848
	성별	1	.689	.689	4.613*
	학년×성별	3	2.024	.675	4.520**
	오차	170	25.375	.149	
나누기	학년	3	1.400	.467	3.321*
	성별	1	.524	.524	3.729
	학년×성별	3	.669	.223	1.587
	오차	170	23.884	.140	
협력하기	학년	3	1.835	.612	4.057**
	성별	1	.886	.886	5.873*
	학년×성별	3	1.443	.481	3.190*
	오차	170	25.635	.151	
편안하게 하기	학년	3	.914	.305	2.121
	성별	1	2.159	2.159	15.032**
	학년×성별	3	.502	.167	1.166
	오차	170	24.416	.144	

* $p < .05$, ** $p < .01$.

SD=.43)이 6학년($M=2.18$, $SD=.37$)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돕기’와 ‘협력하기’ 요인에서 학년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5와 그림 6에서 보듯이, 3학년과 4학년의 경우는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5학년과 6학년에서는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남자 아동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점수차가 크지 않으나 여자 아동은 점수차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요인들에 대해서 남녀별로 학년에 따른 단순주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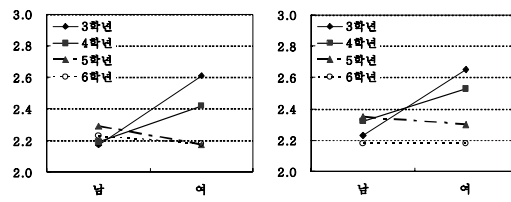


그림 5. 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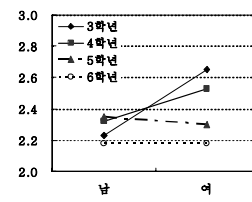


그림 6. 협력하기

표 7. 학년과 성별에 따른 단순주효과 검증

	돕 기					
	남			여		
	<i>M</i>	<i>SD</i>	<i>grouping</i>	<i>M</i>	<i>SD</i>	<i>grouping</i>
3학년	2.17	.35		2.61	.37	a
4학년	2.19	.47		2.42	.42	ab
5학년	2.29	.33		2.17	.33	b
6학년	2.23	.41		2.18	.37	b
	<i>F</i> = .391			<i>F</i> = 5.758**		
	협력하기					
	남			여		
	<i>M</i>	<i>SD</i>	<i>grouping</i>	<i>M</i>	<i>SD</i>	<i>grouping</i>
3학년	2.23	.35		2.65	.34	a
4학년	2.32	.48		2.53	.37	ab
5학년	2.35	.38		2.30	.39	bc
6학년	2.18	.45		2.18	.25	c
	<i>F</i> = .797			<i>F</i> = 7.393**		

** $p < .01$.

† a, b, c는 사후검증결과를 나타냄(abc: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돕기’ 요인에서 여아는 3학년과 5, 6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하기’ 요인의 경우, 여아는 3학년과 6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에 남아는 학년에 따

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 전체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69$, $p<.01$). 또한 기본생활습관 전체는 친사회적 행동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기본생활습관 전체는 돕기($r=.64$), 협력하기($r=.60$), 나누기($r=.59$), 그리고 편안하게 하기($r=.56$)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의 하위요인과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질서는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 중 돕기($r=.54$)와 나누기($r=.54$)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질서 행동을 많이 할수록 돕기와 나누기 행동도 높아지게 된다. 다음으로 협력하기($r=.48$), 편안하게 하기($r=.45$)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

관이 있었다. 정리정돈은 돕기($r=.54$), 협력하기($r=.53$), 편안하게 하기($r=.49$), 그리고 나누기($r=.47$)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보였다. 신의와 책임은 돕기($r=.58$), 나누기($r=.56$), 협력하기($r=.53$), 그리고 편안하게 하기($r=.52$)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예절은 돕기($r=.54$)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나누기($r=.48$), 협력하기($r=.46$), 그리고 편안하게 하기($r=.45$)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건강은 협력하기($r=.47$), 돕기($r=.45$)와 나누기($r=.45$), 그리고 편안하게 하기($r=.43$)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청결은 협력하기($r=.40$), 돕기($r=.39$), 나누기($r=.38$), 그리고 편안하게 하기($r=.37$)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율은 돕기($r=.42$)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협력하기($r=.38$), 나누기($r=.36$), 그리고 편안하게 하기($r=.34$)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4.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하위변인군과 친사회적 행동 하위변인군과의 관계 분석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표 8.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상관관계

($n=178$)

		기 본 생 활 습 관							
		질서	정리정돈	신의와 책임	예절	건강	청결	자율	전체
친 사 회 적 행 동	돕기	.54**	.54**	.58**	.54**	.45**	.39**	.42**	.64**
	나누기	.54**	.47**	.56**	.48**	.45**	.38**	.36**	.59**
	협력하기	.48**	.53**	.53**	.46**	.47**	.40**	.38**	.60**
	편안하게 하기	.45**	.49**	.52**	.45**	.43**	.37**	.34**	.56**
	전체	.58**	.59**	.63**	.56**	.52**	.44**	.43**	.69**

** $p<.01$.

표 9. 초등학교의 기본생활습관 하위변인군과 친사회적 행동 하위변인군 간의 정준변량함수

정준 변량함수	정준계수	정준근	비율	고유치	Wilk's	Chi-SQ	df	Sig.
제1정준함수	.708	.501	86.528	1.004	.461	132.278	28	.000
제2정준함수	.234	.055	9.499	.058	.924	13.462	18	.763
제3정준함수	.137	.019	3.282	.019	.978	3.874	10	.953
제4정준함수	.060	.004	.007	.004	.996	.613	4	.962

초등학교의 기본생활습관을 예측변인군으로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을 준거변인군으로 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참조).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개의 정준함수 중 제1정준함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유의도 검증결과를 보면 Wilk's Lambda=.461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제1정준함수에 대해서 정준가중치(canonical weight), 정준부하치(canonical loading), 정준적재치의 자승값(L^2), 그리고 준거변인군의 군내변량비($\% \sum L^2$)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에 제시된 제1정준변량함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기본생활습관 하위변인들 중 정준부하치가 가장 높은 예측변인은 신의와 책임(-.894)으로 군내변량의 19.6%를 설명

하였고, 다음으로 질서(-.826)가 16.7%, 정리정돈(-.825)이 16.6%, 예절(-.797)이 15.5%, 건강(-.724)이 12.8%, 청결(-.624)이 9.5%, 그리고 자율(-.617)이 9.3%를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기본생활습관 하위변인들 중에서 친사회적 행동 변인에 관한 예측력은 신의와 책임, 질서, 정리정돈, 예절, 건강, 청결, 그리고 자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예측변인군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유력한 준거변인은 돕기(-.924)가 28.6%, 협력하기(-.857)가 24.6%, 나누기(-.856)가 24.5%, 그리고 편안하게 하기(-.817)가 22.3% 순으로 나타났다. 즉, 기본생활습관 변인들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친사회적 변인은 돕기, 협력하기, 나누기, 그리고 편안하게 하기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초등학교의 기본생활습관 하위변인군과 친사회적 행동 하위변인군 간의 정준상관관계 분석

		기본생활습관(예측변인군)							친사회적 행동(준거변인군)			
		질서	정리정돈	신의와 책임	예절	건강	청결	자율	돕기	나누기	협력하기	편안하게 하기
정준 변량 함수	W	-.061	-.272	-.458	-.226	-.122	-.028	-.046	-.441	-.304	-.197	-.200
	L	-.826	-.825	-.894	-.797	-.724	-.624	-.617	-.924	-.856	-.857	-.817
	L ²	.682	.681	.800	.635	.524	.389	.381	.854	.733	.734	.667
	$\% \sum L^2$	.167	.166	.196	.155	.128	.095	.093	.286	.245	.246	.223

표 11.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하위변인군과 친사회적 행동 하위변인군 간의 교차상관

기본생활습관 (예측변인군)	정준준거변인군과의 교차상관적재치	친사회적 행동 (준거변인군)	정준예측변인군과의 교차상관적재치
질서	-.585	돕기	-.654
정리정돈	-.584	나누기	-.606
신의와 책임	-.633	협력하기	-.607
예절	-.564	편안하게 하기	-.578
건강	-.512		
청결	-.441		
자율	-.436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변인군과 친사회적 행동 각 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한 친사회적 행동 변인군과 기본생활습관 각 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교차상관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1을 살펴보면, 교차상관에서 가장 예측력이 강한 예측변인은 신의와 책임(-.633)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질서(-.585), 정리정돈(-.584), 예절(-.564), 건강(-.512), 청결(-.441), 그리고 자율(-.436)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친사회적 행동 변인은 돕기(-.654), 협력하기(-.607), 나누기(-.606), 그리고 편안하게 하기(-.578)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하위변인 중에서 신의와 책임, 질서, 정리정돈이 친사회적 행동을 잘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이 변인들은 친사회적 행동 중 돕기와 협력하기를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청결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예절, 건강, 질서, 신의와 책임, 자율, 그리고 정리정돈 순으로 기본생활습관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유아의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5)에서 부모의 경우는 ‘절제’를 가장 높게, 다음으로 ‘청결’, ‘예절’, 그리고 ‘질서’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사의 경우, ‘청결’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질서’, ‘절제’, ‘예절’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다른 연구(정경미, 2003)에서는 부모의 경우, ‘절제’, ‘청결’, ‘예절’, ‘질서’ 순으로 그리고 교사의 경우, ‘절제’, ‘질서’, ‘청결’, ‘예절’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옥희,

2000)에서는 남녀 아동 모두 ‘절제’, ‘예절’, ‘청결’, 그리고 ‘질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는 기본생활습관을 질서, 청결, 예절, 그리고 절제 네 가지로 구분한 척도들을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질서, 정리정돈, 신의와 책임, 예절, 건강, 청결, 자율 등 일곱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상의 연구결과들에서 보여지듯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은 연구자마다 큰 차이가 있는 관계로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다만, 아동은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와 교사로 나타났다(정현아,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청결’이 높게 나온 것은 부모나 교사들이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손발씻기, 이닦기, 쓰레기 바르게 처리하기 등을 통해 자기 몸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환경을 보존하는 등 깨끗한 생활태도를 익히는 기본생활습관 교육에 힘쓴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하위요인들 중 ‘질서’, ‘정리정돈’, ‘신의와 책임’, 그리고 ‘건강’ 요인에서 학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학년이 낮을수록 기본생활습관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년과 성별에 따라 ‘질서’, ‘정리정돈’, ‘예절’ 그리고 ‘청결’ 요인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3, 4학년이 5, 6학년에 비해 ‘질서’를 높게 실천하며, 6학년보다는 3학년이 ‘정리정돈’과 ‘청결’을 높게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기본생활습관 연구(박옥희, 2000; 박정환, 1998; 황인옥, 2003)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생활습관의 형성 정도가 높거나 혹은 연령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생활습관의 선행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지금까지의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온 시기의 문제이다. 즉, 기본생활습관 교육이 생의 전반부의 주요한 과제로 생각해서 주로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대상으로만 실시되면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기본생활습관 교육이 경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바른생활과 도덕과의 학년별 연간 시간배당을 살펴보면 1학년 60시간, 2학년 68시간, 그리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34시간으로 되어 있다(교육부, 2001). 이처럼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시간이 감소하고 있다. 교육시간의 단축과 함께 유해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면서 이전에 형성된 좋은 습관 역시 나쁜 습관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선행연구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즉,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편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현존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본생활습관 연구 역시 저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기본생활습관의 차이에 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기본생활습관의 하위요인인 ‘건강’과 ‘자율’에서

평균적으로 남자 아동보다 여자 아동들이 높게 나타났다. 즉,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해 평상시에 기본생활습관을 잘 이해하고, 나아가 이를 높게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김규수, 2000; 이영일, 1998; 박옥희, 2000; 황인옥, 2003)에 따르면, 기본생활습관 하위요인 모두에서 남자 아동보다 여자 아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Chen et al., 1997). 즉,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은 여아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특성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Twenge, 1997), 여아는 사회적 과정에서 남아에 비해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에 대한 외부 강화를 많이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결과로 사료된다.

둘째,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편안하게 하기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나누기와 협력하기, 그리고 돕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내연구에서 친사회적 행동은 돕기, 나누어 주기, 위안 그리고 협력하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박유경, 1992), 본 연구에서는 편안하게 하기, 나누기와 협력하기, 돕기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들 각각의 평균들을 살펴보면, 편안하게 하기, 나누기, 그리고 협력하기 사이의 차이는 미비하기에 어떤 것이 조금 더 높다고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친사회적 행동은 어린 연령에서부터 발달하며 이는 발달적 성취의 결과라는 연구(Bar-Tal, Raviv, & Goldberg, 1982; Dunn & Munn, 1986; Radke-Yarrow & Zahn-Waxler, 1984)도 있고, 단

순히 연령이 증가한다고 해서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연구(박경원, 1986; Radke-Yarrow, Zahn-Waxler, & Chapman, 1983)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학년이 낮을 경우에 친사회적 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협력하기’ 요인은 4학년이 6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의 기본생활습관 연구결과에서처럼 고학년 시기에 적합한 수준의 재교육이 부족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연령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연구결과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해석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돕기’, ‘협력하기’, 그리고 ‘편안하게 하기’와 같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의 요구에 더 빨리 반응하고 나눠주기나 개입 등의 전체적인 조력행동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King & Barnett, 1982; White, 1972)와 일치한다.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소영, 2002; Dekovic & Janssens, 1992). 하지만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성차가 없다는 연구결과(임성혜와 박은실, 1989; Bar-Tal, Raviv, & Leiser, 1982)도 있다.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에서의 성차 역시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령과 성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누가 더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요인이 친사회적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본생활습관 총점과 친사회적 행동 총점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기본생활습관의 하위요인과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오늘날 많은 발달심리학자들은 감정이입, 동정심 등 긍정적인 감정은 도덕성발달과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에 분노,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은 도덕성발달과 부적 상관이 있다고 믿는다(정옥분, 2005). 지금까지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지만 기본생활습관이 도덕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혜옥, 2001; 허문익, 1992)와 친사회적 행동과 도덕적 판단과는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박은실, 1987)를 통해 볼 때,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인 개인정서 조절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그리고 학교 적응능력 등과 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Maccoby, 1980)와 친사회적 토의활동에 참여한 아동이 참여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교 적응 기술, 대인관계 형성 기술, 개인 정서 조절 기술이 더 우수하다는 연구(김영옥과 윤경선, 1999), 사회적 수용도 및 또래 간 인기가 높은 아동이 친사회적 행동 기술도 높다는 선행연구들(마송희, 1991; 송미선, 1995)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평소에 질서, 정리정돈, 신의와 책임, 예절, 건강, 청결, 자율 등의 기본생활습관을 잘 지키는 아동은 돕

기, 나누기, 협력하기, 그리고 편안하게 하기 등의 친사회적 행동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본생활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서로 협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역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하위변인군과 친사회적 행동 하위변인군 간의 정준상관 분석결과, 제1정준함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즉,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은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친사회적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기본생활습관 변인은 신의와 책임이고, 다음으로 질서, 정리정돈, 예절, 건강, 청결, 그리고 자율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본생활습관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는 친사회적 행동 변인은 돕기, 협력하기, 나누기, 그리고 편안하게 하기였다. 특히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주어진 책임을 바르게 수행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신뢰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동 즉, 신의와 책임을 가진 아동은 자신의 도움이 요구되는 여러 상황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연구(Eisenberg-Berg & Hand, 1979)에서는 또래나 의미있는 성인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은 아동기의 돈독한 우정을 발달시키는데 성공적일 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에서의 역할수용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정서 상태나 필요를 해석하고 이에 반응할 수 있는 역할수용능력의 증대는 친사회적 행동을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적응을 예측해 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밝힌바 있다(Ladd, Price, & Hart, 1990).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사회적 기술로서의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선행연구(김성희, 2005; 이애숙, 2000)에 따르면,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기 위한 즉, 내면적인 자아를 확장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기본생활습관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강규영(2004)의 연구에서는 기본생활습관을 토대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에서 기본생활습관 교육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가진다면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인 친사회적 행동 역시 함께 높아져서 궁극적으로 인성교육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중요한 사회적 기술인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직접적 관계를 밝힌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이 둘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새로운 연구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성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아동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는 기본생활습관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친사회적 행동 역시 강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끝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수행된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의 상당수 연구들은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가소성이 풍부한 유아기를 지나면 한 번 형성된 습관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그리고 영속성이 있으므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 또는 민주 질서의 구축은 유아기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본생활습관을 전생애 발달로 이해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생활습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본생활습관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넓혀 유아와 아동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나아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회적 행동은 크게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기본생활습관과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도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대상은 여러 초등학교의 다양한 학급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보다는 한두 학급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기본생활습관과 친사회적 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의 해석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즉, 학년차이가 아닌 그 학급을 운영하는 담임선생님의 영향일 수도 있다. 왜냐하

면 교사의 학급운영 양태 등에 따라서 아동의 행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여러 학교의 다양한 학급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초등학생들은 학년이 낮을수록, 그리고 남자 아동보다는 여자 아동이 기본생활습관을 더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고학년과 남아들의 기본생활습관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생활습관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규영 (2004). 저학년에서의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지영 (1994). 朝鮮時代 兒童教材의 內容 分析: 童蒙先習과 擊蒙要訣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 (1994).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_____ (1995). 더불어 사는 사람.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_____ (1998). 초등 학교 교육 가정 해설(III)-국어, 도덕, 사회.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_____ (2001).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자료(II)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서울: 주신영프린팅.
- 권소영 (2002). 유아의 정서지능과 자아개념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연희 (1995).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규수 (2000).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그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1), 229-252.
- 김병례 (2002). 몬테소리 프로그램 교육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 (2005). 초등학교 아동의 인격 형성을 위한 기본생활습관 지도에 관한 실천 연구. 서울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 윤경선(1999). 친사회적 토의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307-324.
- 김종두 (1991).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위한 제주어린이 생활본 안내. 교육제주, 74, 67-75.
- 김현숙 (2000). 초등학교 인격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옥 (2001). 기본생활의 단계적 지도 프로그램이 유아의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은영 (2006). 유아의 기질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 연구.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암순 (1989). 인간교육으로서의 생활지도: 국민한교를 중심으로. 수도교육, 111,

- 24-28.
- 류점숙 (1991). 조선후기 동몽교재의 내용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마송희 (1991). 아동의 사회적 수용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현숙 (2002). 아버지 양육태도와 유아자녀의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인식관계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원 (1986). 아동의 이타행동의 발달과 역할 수행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숙 (1999). 유아의 가정환경 변인과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옥희 (2000). 유아의 발달수준과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유경 (1992). 아동의 역할수용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실 (1987). 친사회적 행동과 도덕적 판단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자 (2001). 친사회적 놀이가 초등학교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환 (1998). 유치원과 초등 1년 및 2년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인옥 (1998). 조선시대 유아의 기본생활 교육에 대한 고찰. 유아교육학논집, 2(1), 29-46.
- 보건복지부 (1997). 기본생활습관지도. 서울: 보건복지부.
- 송미선 (1995). 놀이개입 상황에 있어서 유아의 또래지위에 따른 사회적 행동과 의사소통 기술.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세정 (1999).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정 (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성은 (1995). 공감과 사회적 평가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정선 (1997).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세진, 정옥분 (2006).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3(2), 55-76.
- 연영아 (1993). 유아의 기본생활교육에 관한 교사의 태도 조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숙 (1995). 전통 사회의 아동교육에 관한 연구: 격몽요결과 사소절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창렬 (1983). 기본생활 및 학습 습관의 중요성과 지도의 실제. 경기장학, 80, 251-258.
- 윤여운 (1998).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의 딜레마 유형에 따른 아동들의 도덕성 판단의 비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숙 (2001). 사회성발달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친사회적 사고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애숙 (2000).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인성 교육 방안 연구: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일 (1998).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관한 연구: 몬테소리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 방인옥, 박찬옥 (1992). 유치원의 기본 생활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회 유아교육연구, 12(1), 71-90.
- 이혜주 (1996). 친사회적 행동훈련이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사회적 책임감, 친사회적 행동동기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성혜, 박은실 (1989). 4, 6, 9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관한 연구. 청주실업전문대학, 11, 607-630.
- 정경미 (2003). 유아의 기본생활 교육 및 수행을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금자 (2001). 유아의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 생활습관 교수 방법. 인문예술논총, 22, 157-172.
- 정옥분 (2005).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현아 (1994). 유아의 기본생활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허석 (1992). 기본생활습관의 내면화를 통한 바른태도의 행동화 방안. 전라북도 교육연구원 연구월보, 236, 50-55.
- 최상연 (2001). 전통예절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충지 (2000). 기본생활 습관과 조화로운 삶. 교육연구정보, 37, 67-76.
- 표옥자 (1996). 유아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5). 유치원 교육 평가 연구: 기본생활습관 평가.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유아교육학회 (1996). 유아교육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 한정선 (2001). 도덕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문의 (1992). 도덕성 함양을 위한 기본생활 습관 지도. 교육제주, 75, 121-127.
- 황인옥 (2003). 유치원 교육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Tal, D. (1976). *Prosocial behavior: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Wiley.
- _____ (1982). Sequential development of helping behavior: A cognitive-learning approach. *Developmental Review*, 2, 101-124.
- Bar-Tal, D., Raviv, A., & Goldberg, G. (1982). Helping behavior among preschool children: An observation study. *Child Development*, 53, 396-402.
- Bar-Tal, D., Raviv, A., & Leiser (1982). The

- development of altruistic behavior: Empirical evid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6, 516-524.
- Black, C., Seeman, J., & Trobaugh, L. (1999). *Using children's literature to increase prosocial behaviors in the early years*. University and IRI.
- Chen, X., Dong, Q., & Zhou, H. (1997). Authoritative and authoritarian parenting practices and social and school performance in Chines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1, 855-873.
- Dekovic, M., & Janssens, J. M. A.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25-932.
- Dunn, J., & Munn, P. (1986). Siblings an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9, 265-284.
- Eisenberg, N. (1982).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Eisenberg, N. (198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isenberg-Berg, N., & Hand, M. (1979). The relationship of preschoolers' reasoning about prosocial moral conflicts to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0, 356-363.
- Feshbach, N. D., & Feshbach, S. (1982). Empathy training and the regulation of aggression: Potentialities and limitations. *Academic Psychological Bulletin*, 4, 399-413.
- Gelman, R. (1969). Conservation acquisition: A problem of learning to attend to relevant attribute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7, 167-187.
- Hill, E. W., & Mulis, R. L. (2000). Intergenerational perceptions of attachment and prosocial behavior. *Marriage & Family Review*, 30(1/2), 59-72.
- Hoffman, M. L. (1982). The measurement of empathy. In C. E. Izard (Ed.), *Measuring emotions in infants and children* (pp.279-29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rton-Parker, R. J. (1998). Teaching children to care: Engendering prosocial behavior through humanistic parenting.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 Development*, 37(2), 66-77.
- Inhelder, B., & Piaget, J. (1958). *The growth of logical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New York: Basic Books.
- King, L. M., & Barnett, M. A. (198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reschoolers helpfulness. *Child Study Journal*, 12, 143-149.
- Krebs, D. (1975). Empathy and altru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134-1146.
- Ladd, G. W., Price, J. M., & Hart, C. H. (1990). Preschoolers' behavioral orientations and patterns of peer contact: Predictive of peer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90-11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child*

- relationship.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McGinnis, E., & Goldstein, A. P. (1990). *Skill streaming in early childhood*. Illinois: Research Press.
- Midlarsky, E. (1984). Competence and helping: Notes toward a model. In E. Staub, D. Bar-Tal, J. Karylowski, & J. Reykowski (Eds.),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prosocial behavior: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positive morality* (pp.291-308). New York: Plenum.
- Radke-Yarrow, M., & Zahn-Waxler, C. (1984). Roots, motives, and patterns i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In E. Staub, D. Bar-Tal, J. Karylowski, & J. Reykowski(Eds.),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prosocial behavior: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positive behavior*(pp.81-99). New York: Plenum.
- Radke-Yarrow, M., Zahn-Waxler, C., & Chapman, M. (1983). Children's prosocial dispositions and behavior, *Handbook of Child Psychology*(4th ed.). New York: Wiley.
- Rosenkoetter, L. L. (1999). The television situation comedy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5), 979-983.
- Rushton, J. P. (1980). *Altruism, socialization, and socie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haffer, H. R. (1994).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CA: Brooked/Cole.
- Spodek, B. (1982). *Handbook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New York: A division of macmillan of publishing Co. Ind.
- Tremblay, R. E. VF., Gagnon, C., Piche, C., & Royer, N. (1992). A prosocial scale for 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 Concurrent and predictive correl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2, 227-245.
- Twenge, J. M. (1997). Changes in masculine and feminine traits over time: A meta analysis. *Sex role*, 36, 305-325.
- White, G. M. (1972). Immediate and deferred effects of model observation and guided and unguided rehearsal on donating and steal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139-148.
- Wier, K., & Duveen, G. (1981). Furthe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 for use by teache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 357-374.

1 차원고접수 : 2007. 10. 01.

수정 원고접수 : 2007. 11. 09.

최종 게재 결정 : 2007. 11. 14.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Basic Life Habits and Pro-social Behavior

SeJin Eom

OckBoon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basic life habits and pro-social behavior. The subjects were 178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wo-way ANOVAs, Pearson's correlations, an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Order-manners and Organiza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rade. Also Health and Independenc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2) Cooperation behavio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rade, while Helping, Cooperation, and Comfort behavio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3)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basic life habits and pro-social behavior. 4)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Faithfulness and Responsibility wa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pro-social behavior. Other significant factors were Order-manners, Organization, Manners, Health, Cleanliness, and Independence. Helping behavior was the most influential pro-social behavior factor along with Cooperation behavior, Sharing behavior and Comfort behavior.

Key words : basic life habits, pro-social behavi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faithfulness and responsibility, helping behavior